



생존권 사수 위해 전국 낙농육우농가 총 결기!!

6.17 전국낙농육우인 총 결기대회 개최

6월 17일(화) 정오, 여의도에 목장원유가 현실화 및 경영회생대책 촉구를 위해 전국의 8,000여 낙농육우농가 총 집결하였다. '원유가 현실화, 사료값 안정특단대책 마련, 한미FTA 비준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생존권을 쟁취를 위해 나선 낙농육우인들은 이날 다시한번 저력을 확인하며 투쟁을 시작을 알렸다.



대회 이후 단식농성 지속전개

6.17 전국낙농육우인종결기대회 직후 이승호 회장, 선종승 이사를 비롯 회장단, 임원들은 여의도에 터를 잡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협회는 농성장에 상황실을 마련, 투쟁을 위한 모든 제반업무를 숨가쁘게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릴레이집회 봉기

6월 21일 긴급회장단회의에서는 원유가현실화 문제가 지난해지자 메이저유업체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릴레이집회를 벌이기로 결정.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릴레이집회를 가졌다. 이 기간 참석한 농가들이 약 5천 명. 원유가 현실화에 미온적인 유업체를 향한 농가들의 분노를 알리고 '대한민국 낙농은 하나다'는 동지의식을 확 인하는 한편, 유업체가 계속적인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납유거부로 맞설 것임을 표명하였다.



매일유업 평택공장





남양유업 천안공장

